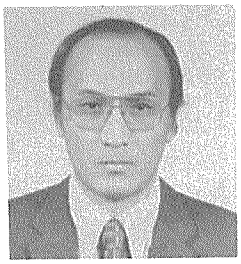
Perscom이용 증대 방안



全 吉 男
韓國科學技術院 電算學科 敎授

소프트웨어의 부재
사용자들의 인식 부족
활용법 및 교육에 대한 착오
소프트웨어의 한글 표준화 등의 미비가
국내의 Perscom이용 증대의 문제점.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
시장확보 및 교육체질개선
등을 통하여 Perscom의
이용 증대 방안을
제시한다.

1. 서 언

한나라가 전반적인 컴퓨터 기술 수준의 척도가 되는 것이 퍼스널 컴퓨터의 이용정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고성능 컴퓨터 기술은 월등히 뛰어난데 퍼스널 컴퓨터의 기술이 뛰어나지 못해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은 국가도 없으며, 퍼스널 컴퓨터의 이용은 활발한데 전반적인 컴퓨터 기술 수준이 낮은 국가도 또한 없다. 그리하여 많은 선진국가에서는 퍼스널 컴퓨터의 보급과 이용 증대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며, 치밀히 계획된 Master Plan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고찰에서 보면 예외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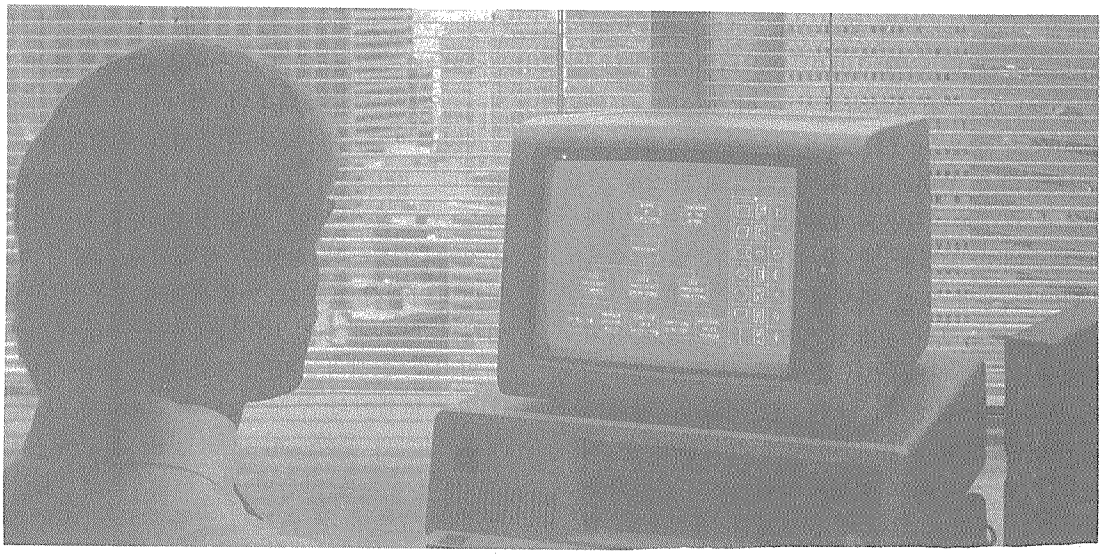
과거 수년간 불어닥친 퍼스널 컴퓨터의 붐을 요즈음 다시 한 고비를 맞고 있다. 8Bit 퍼스널 컴퓨터에서 16Bit 퍼스널 컴퓨터로 전환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다. 선진국의 경우 체계적인 발전으로 별무리 없이 넘어가고 있으나,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또 하나의 고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현명한 대책으로 이러한 진통을 소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컴퓨터 기술에 있어서만큼은 선진국이 될 수 있다.

2. 퍼스널 컴퓨터의 이용 현황

퍼스널 컴퓨터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만일 퍼스널 컴퓨터가 전부 작동이 중단된다면, 모든 사무실과 많은 가정에서 대부분의 업무 진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만큼 퍼스널 컴퓨터가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가까운 미국의 예를 들면, 과거 책상에서 종이와 장부 그리고 펜으로 처리하던 대부분의 일들이 퍼스널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Word Processor, Spread Sheet, Personal file System 등을 기본적인 골격으로 하여, 요



Perscom이용증대로 Computer 산업의 발전 그리고 컴퓨터 선진국으로 나가야 한다.

즈음은 퍼스널 컴퓨터가 대형 기종과 Communication이 가능해지면서, 그 기능과 성능면에서도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은 솔직히 말해 그렇지 못하다. 지난 수년간 많은 양의 퍼스널 컴퓨터가 보급되어 각 현장에 배치되어 있으나, 널리 보급된 이 퍼스널 컴퓨터들은 각기 제자리에 놓여지지 못했으며 활용 또한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의 이유에 대하여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이러한 시련을 딛고 일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에 미루어 보면, 보급된 양에 비해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전산처리에 대한 필요성의 부족이라 하겠다. 선진국에서 업무를 전산화한다고 해서 무조건 컴퓨터만 도입하고 소프트웨어만을 개발한다고 우리도 동일한 수준의 이용 현황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필요성에 의해 자발적으로 발전해 나간 것이므로 순항할 수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그러한 필요성을 유도하여 발전시켜야만이 제대로 이용 증대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퍼스널 컴퓨터를 이용하여 어느 정도까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한 Model case를 관주도형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선진국에서 겪어왔던 모든 시행 착오를 Model case안에서 흡수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퍼스널 컴퓨터의 이용증대는 간단히 생각해서 해결할 문제는 결코 아니며, 이미 우리는 미미하나마 줄일 수 있었던 시행 착오를 이미 겪은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과 더불어 관련된 제반 문제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제반 문제점

퍼스널 컴퓨터가 널리 활용되지 못한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소프트웨어의 부재라 하겠다. 컴퓨터 자체는 생명력이 없는 기계덩어리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기계에 생명을 불어넣어 의미있게 활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는 퍼스널 컴퓨터의 광범위한 활용의 기반이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면 첨단기술인 컴퓨터를 널리 보급한다는 견지하에 단순히 하드웨어 자체만의 대량 생산 및 대량 공급에만 주력하고 이러한 기계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해주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에는 등한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참고로 퍼스널 컴퓨터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국가를 살펴보면 하드웨어의 구성에는 관점을 두지않고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가 주안점이 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한글이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언어체계가 있고 실생활에서 그것이 쓰이고 있는 한 아무리 좋은 영문 소프트웨어라도 사실상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퍼스널 컴퓨터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계의 보급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좋은 소프트웨어의 공급 또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로, 우리의 퍼스널 컴퓨터의 이용 확산의 장애물은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 부족이라 하겠다. 일반 사용자들은 컴퓨터를 구입만 하면 모든 일이 쉽게 전산화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하여 전산화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단편적인 지식으로 컴퓨터의 성능에만 신경을 쓴다.

그러나 실제로 컴퓨터를 활용하여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해당 업무와 목적에 맞는 소프트웨어의 유무가 사실상 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결국 하드웨어만을 구입하면 소프트웨어는 덤으로 끼워준다는 사고방식이나 그러한 인식은 오히려 퍼스널 컴퓨터의 활용 증대에 역행하는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인식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개발 당사자나 판매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퍼스널 컴퓨터의 이용 증대에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활용법에 대한 착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컴퓨터를 배운다하면 맨처음 프로그래밍 언어부터 배운다. 컴퓨터의 인식이 제대로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처음부터 언어부터 배운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이나 비슷하다. 먼저 그나라의 환경을 배우고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가를 안 연후에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왜 그 상황에서 그러한 표현 방법으로 표현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독특한 표현 기법과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컴퓨터의 활용에 있어서도 좋은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용도에 맞게 활용하는 법부터 배우고 난 뒤에 컴퓨터를 유용할 수 있는 언어를 배우는 것이 올바른 교육 순서이며 활용순서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컴퓨터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배우기 전에 언어부터 배우므로, 어느 누가 자신의 의사를 원하는 대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좋은 소프트웨어의 부재도 문제지만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점이다.

마지막으로 수반되는 문제점은 표준화의 문제점이다.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특히 한글 조차도 표준화가 되어 있지 못한 우리의 실정은 솔직히 표현하여 심각한 상태이다. 넓지 않은 땅덩어리에서 표준화가 체계화되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발전에 대한 기대는 무리가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핵심을 뽑아 정리해보면, (1) 소프트웨어의 부재, (2) Standard의 부재, (3) 활용 인식의 부족, (4) 활용 방법 및 교육 체제의 미숙 등으로 간추려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극복이 곧 퍼스널 컴퓨터의 이용 증대의 첩경이 될 것이다.

4. 해결방안 및 발전 방향 제시

앞절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에서의 퍼스널 컴퓨터 이용 증대에 대한 중대 관점이 될 것이다. 그 해결 방안을 한마디로 간추린다면, 좋은 소프트웨어가 많이 개발되어 널리 보급되고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과 활용 증대가 그 핵심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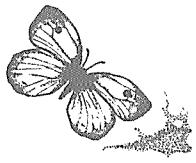
그렇다면 먼저 어떻게 하면 좋은 소프트웨어가 많이 그리고 폭넓게 공급될 수 있을까?

가장 시급한 것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특히 한글에 대한 표준화일 것이다. 제한된 시장내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업으로 삼기 위해서 가능한 한 판매시장을 확장시켜야 하는 것이다.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는 표준화만이 유일한 시장 증대 방안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표준화가 가능해지는가? 외국의 사례를 살펴 보면 두가지 유형이 있다. 관주도형과 기업주도형이 있다. 전자는 일본의 경우가 대표적인 형태이고 미국의 경우가 후자의 대표적인 국가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은 서로 핑계만 대고 있는 실정이다. 관에서는 정해 놓은 표준에 기업이 추종하지 않는다고 발뺌하고 기업에서는 관의 표준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고 핑계를 댄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발전이 될 수 없다. 관과 기업이 서로의 의견을 종

합할 수 있는 장을 형성할 때 얻어지는 의미있는 표준화는, 소프트웨어의 시장확대에 필수 사항이며, 결국 좋은 소프트웨어의 양산체제의 준비작업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의 인식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구입하면 저절로 따라 오는 것이 아니고, 하드웨어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상품인 것이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도 해야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관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보호대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특히 퍼스널 컴퓨터의 경우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개발하게 되므로, 좋은 소프트웨어의 생산과 보급을 위해서는 인식 개혁을 위한 치밀하고도 체계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양질의 소프트웨어의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에 더불어 좋은 소프트웨어는 개발과 보급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체계적인 활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컴퓨터가 활용되는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프로그래밍 언어로 자신의 목적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것이 적당치 못한 사고 방식이며 컴퓨터 교육 체제이다. 그러므로 일단 양질의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면,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목적에 컴퓨터를 부합시킬 수 있는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무허가 컴퓨터 교습소보다는 체계적으로 교육, 퍼스널 컴퓨터를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장과 체제가 필요하다. 이 역시 관과 관련 기업체들의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직 소프트웨어 생산 체제가 제대로 성립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퍼스널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어 활용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어느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체계적인 개발지원, 즉 관주도형의 소프트웨어 육성 방안과 관련 참가 기업체들의 의식적인 참여 자세가 다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해결 방안이 효율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퍼스널 컴퓨터의 활용은 당연히 증대될 것이며, 정상적인 제도로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 결 언

또 하나의 중대한 고비에 서있는 우리의 퍼스널 컴퓨터의 현황을 미루어 볼 때, 첨단 산업인 컴퓨터 기술을 우리의 중대한 기저라고 생각할 때, 전국적인 컴퓨터 마인드를 보급하기 위해 퍼스널 컴퓨터가 중요한 도구라고 느낄 때,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은 너무도 시급한 당면과제이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것이다. 이는 누구가 누구에게 미루어서 해결될 문제점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자신의 당면과제로 생각하고 참여하지 않는 한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문제점이 우리 주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세계적으로 앞서 나아가는 국가가 되기 위한 초석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